

치 사

전국의 청년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불교청년회 창립 93주년을 기념하는 제32차 전국불교청년대회 개최를 깊은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한국불교의 미래를 가늠하게 하는 여러분의 진력이 싱그러운 계절을 더없이 무성하게 합니다. 함께한 청년 불자의 건승을 축원하며, 오늘을 위해 수고를 다한 젊음에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청년 불자 여러분!

불자로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정진의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와 행복을 위하는 마음은 여러분의 일상을 떠나지 않아 왔습니다. 이러한 뜻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고 함께 나아가기를 일심으로 발원하면서, 오늘과 같이 우리의 정성을 모으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종단도 정전 6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대회’를 준비하며, 역사의 무게를 감내해 온 이들에게는 마음을 나누어 위로하고, 민족의 공존과 상생을 도모함은 물론 동아시아의 평화와 모든 이의 평온을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청년회 창립자이신 만해대선사께서도 분단의 아픔을 해결할 역사적 사명과 책임을 인식하고 통일성업을 위하여 앞장설 것을 당부하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청년 불자들이 짊어지고 나가야 할 과제이자 임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청년불자 여러분!

‘평화통일을 꿈꾸자’는 주제로 준비한 금번 대회는 이러한 의미를 잘 담아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한국불교는 물론 우리 사회의 중추로써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실천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대한불교청년회 현장 전문을 살펴봐도 그 뜻이 고스란히 담겨있기도 합니다. 이는 청년불자 뿐만 아니라 현시

대를 살아가는 불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기도 합니다.

시대를 선도하는 청년 불자들은 부처님 정법을 이 시대의 화두와 내용에 맞게 사회화 하고 일반화 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비록 한 순간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부처님의 정법을 실천하는 길이라면 희망찬 걸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청년 불자의 본래이고 사명이라 여겨야 할 것입니다.

대한불교청년회가 한국불교의 주추가 되고 사회의 기둥으로 역할을 다하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건승에 함께 할 많은 불자들은 밝은 미래로 향하는 그 길에 모두가 동참할 것입니다.

한국불교 중흥을 이루는 희망의 순간에 여러분의 성취가 반드시 함께할 것이기에 여러분의 진력을 거듭 격려하며 대한불교청년회의 더없는 발전을 기원합니다.

불기2557(2013)년 8월11일

대한불교청년회 총재 자승